

수억집 짊어지고 나온 종문서를 태워버리세요!

21면에서 계속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실도 없다 이랬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한 찰나의 살림살이 때문이다. 여러분한테 항상 말하죠. 우리의 살림살이는 한 찰나요. 한 인생 살아가는 것은 한 찰이라고. 여러분이 한 찰나의 살림살이를 지금 하고 가는 겁니다. 요리 변덕, 조리 변덕, 변덕쟁이거든. 변덕쟁이, 도깨비장난, 귀신 장난감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걸 말로 하려니까 그렇지 여러분은 변덕이 무쌍해.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공(空)에 들어서 가만히 있다면 그런 목적인 거야. 또 너무 말을 하고 너무 아는 척을 해서 한테 떨어뜨린다면 그런 귀신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내는 거야. 그냥 거기도 걸리지 마라. 생각이 자꾸 나걸랑은 그대로 그냥 주인 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버려두라고. 버려두는 거지. 왜?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할 자리가 아니야. 아무것도 붙지 않는 자리라고. 그런데 여기서, 편하고(舒服)여러 속에서 그 의식이 들고 나면서 괴로움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고 이러니까 즐겁더라도 방긋이 웃고 말고, 괴롭더라도 방긋이 웃고 말고, 거기서밖에 해결 못하니까. 이열치열, '네 속에서 나온 거는 네 속에서 해결해야지' 딱 속에서 해결 못한다. 나는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어. 네가 무제(無體)로서, 즉 말하자면 큰 부처로 보이더라도 난 거기에 속지 않아.' 이렇게 속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 전자의 종 문서에 의해서 자기가 한 것대로 짊어지고 나온 데서 들고 오는 것에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좋은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고, 말하자면 세 가지씩을 똑바로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는, 나도 마찬가지로. 말 · 뜻 · 행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진실한지를 알게 되면 그냥 따르라고 그랬지,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니야. 따르라 이거야. 왜 따르라고 그랬느냐, 그런 당신네들 주인공 안에 나와 더불어 같이 모두 일체 만물만생이 다 같이 한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

아까 병에 대해서도, 가난에 대해서도, 우환에 대해서도, 괴로움에 대해서도, 허무감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그것이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은 (고)된 것에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모든 것은 나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거 거기에다가 놓고,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로 인도해주는 내 주인공이 감사하구나.' 생각을 해라 이거야.

여러분이 한생각을 그렇게 한다면 이 오장육부 모든 세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바로 진화가 돼 가지고서는 오히려 보살보 화(化)해서 수호신이 돼가지고 나를 보살피고, 보신(敝身)이 돼가지고 보살피고, 보현보살(普賢菩薩)이 돼가지고 보살

피고, 약사보살(藥師菩薩)이 돼가지고 보살피고 아, 이러니 내 몸은 어느 새 나는 줄 모르게 다리도 낮고 어느 새 눈이 밝아져서 '이거 이런 줄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하게 되죠. 이렇게 하게끔 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자비의 칼로써 즉, 자루 없는 칼이 우주 법계를 꿰뚫어서 죽은 세상 산 세상을 넘나들면서 나와 같이 괴롭고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서로가 내가 돼 준다면, 그것은 전부 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여러분 앞에 주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옛날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 그렇게 연결이 돼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전에 어느 분이 날더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님, 스님이 그렇게 잘 아신다면 왜 지금 노사분규나 또 학생들이 이렇게 벌나 휘두르든 하고 미친 듯이 이렇게 날뛰게끔 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됩니까?' 이러거든. 모르는 그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처

뮈, 그래서 그 주걱은 오르는 건 때리고, 안 올라오는 건 오르게 그쳐 평등하게 하면서, 체로 거르듯이 그냥 주걱으로 휘 휘 저어서 맛있게 끓여다 먹을 수 있게끔 해놓을 때가지는, 바람이 어디로 불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다 이 소립니다. 그것은 오히려 바람을 불게 해야 체로 거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합니다.

정말이지 이 권도법(權道法)이란, 대권도법(大權道法)이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참, 광대무변하고 묘하고 그렇게 귀중하고 보배인 것입니다. 누구는 부처님이 왜 자기가 태어난 데를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그랬을까? 예전에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망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나라가 만약에 밭 짓는 술이라면 그 밭을 짓는 사람들이 술을 망가뜨린 거지, 부처님이 그 술을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술을 망가뜨려 봐야 '밭 지을 때 잘 필요한 게 술이구나.' 하는 걸 알게 만들기 위한 그것도 길잡이의 한 방편이아

된다면, 돌이 아니게 나뭇을 깨닫는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십이견(六十二見)도 그렇지만 삼십이응신(三十二應身)이 총만하다 하는 것도, 그런 숫자가 아니라 과거심(過去心), 현재심(現在心), 미래심(未來心), 삼세심(三世心)을, 삼세 대천 세계(大千世界)를 넘나들면서 자유권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다면 지금 태양계나 어떠한 은하계도 그 중심자의 뜻이라면 은하계의 법왕이 내가 될 수 있고 태양계의 법왕이 내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자료를 마음대로 가지고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구름과 안개도 전부 내 통신기가 되고, 바로 내 신장이 되고, 내 제자가 되고, 내가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우주 법계의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해 나갈 수 있는가 하면, 평등하게 하려니만 아까도 주적이 하듯 그 주격으로써 모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바람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켜야만이 체로 쳐지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는 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고 실천을 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이렇게 변천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무명 입었다고 무명웃 입는 타령들만 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것으로는 미비합니다.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옛날에는 명주도 바지 저그릴 해 입었는데 지금 실크로 아주 날씬하게 해 입고들 다닙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저 오면이러면 음식을 해서 여러 가지, 오 늘은 이 음식을 해 먹고 내일은 이 음식을 해 먹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재료가 갖추어가지고 있으니까 그저 다양하게 해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분 바깥에서 빙빙빙빙 그 음식 맛도 못보고 음식도 해 먹을 수도 없고, 그 오분 바깥에서 빙빙빙빙 이게 음식 해 먹는 오분바깥이라 하고선 빙빙 돌아봤자, 십년을 돌아봐도 이십년을 돌아봐도 마찬가지로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특정한 자기의 보배를 가지고 있고 갖추어가지고 있는 질량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딱치는 대로, 자기 소용 닿는 대로, 용도대로 전기도 많이 쓰려면 많이 쓰고 적게 쓰려면 적게 쓰는 용도가 여러분 앞에 닦쳐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도대로 쓰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력을 보지 못하고 전기줄만 보고 전기 들어오는 것만 본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력이 있다는 건 믿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불이 들어오고 전깃줄이 가설이 돼 있다는 걸 아셔야죠. 가설이 된 거, '아이, 저거 뭐 즐만 있고 뭐 전기, 저렇게 하는데 전력이 있긴 뭐가 있어?' 이렇게 믿지 않으신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연결이 되고, 생활에서 아주 맞물아가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도 맞물아가고 있고 생각이 맞물아가고 있고, 천당 지옥이 맞물아가고 있고, 살고 죽고도 맞물아가고 있던 말입니다. 맞물아가는데, 맞물아가기 때문에 귀신이고 선신이고 따로 없고, 중생 부처가 따로 없고, 천당 지옥이 따로 없고, 여자 남자가 따로 없고, 동서남북이 따로 없고 모두가 그러한 도리를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겪어온 그 하찮은 오백년 역사를 또다시 겪지 않고도 우리는 좀더 생동감 있고 좀더 위력 있고, 좀더 승화시켜서 앞으로의 역사를 가져오게끔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9년 4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미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미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님 법은 이리이러하니까 이렇다 이렇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나쁜 거 좋은 거 이런 거를 모조리 체로 쳐서 골라내려면 모든 국민들이 나쁜 거 좋은 거를 다 알아야 그때는 스스로 체에 쳐져. 그러니 자기가 나쁘면 국민들을 우롱하게 되고 국민들에게 나쁘게 된다면 스스로 체에 쳐져서 그냥 밀려서 저 땅으로 내버려지게 돼 있고, 알뜰하게 알맹이, 요 가루는 다 이렇게 체로 쳐지고 아, 그 무거리는 다시 찼어서 먹게끔 또 된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한 술에 죽을 쑤어서 죽이 필필 끓을 때에,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에 그 방울방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모두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그러한 거야. 이 나라에선 이렇게 나오고, 저 나라에서 저렇게 나오고 한 나라에서도 내가 잘나고 내가 못나고 이렇게 모두 팔죽 술에서 팔죽 끓어오르듯이 오르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팔죽 쑤는 사람, 주걱을 든 사람이 있다면 그저 그냥 불룩하게 올라오는 건 것이고, 안 올라오는 건 울리고 흥, 그거 주적이 다 하는 거죠.

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나라의 문제도 여러분이 이 주관만 튼튼히 세워서 진실히 맡겨나간다면 다 해결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주인공이라 하는 것은 찰나 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 돌아가는 거를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없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근본이 당신이지, 응?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다, 우주의 어떠한 것이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아주 조그맣고 하치못한 여러분의 마음의 근본이 제일 귀중하고, 보배인 것이고 높습니다. 그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그것이 바로 우주를 삼킬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달계나, 은하계나, 어떠한 태양계도 바로 돌이 아닌 까닭에 지금 현재에 양 계체가 합류화된다면 전자와 원자, 양자가 같이 혼합이 돼서 중성자가 된다면, 그 위력이 우주를 집어삼키고도 남음이 있는 위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승화시키고, 체험하고 이래서 돌이 아님을 깨닫고, 돌이 아니게 나뭇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그 국난을 면하게 하고 안타까운 걸 면하게 하고 또는 우리 국내의 재정이나 또는 국내에 어떠한 문제가 닦쳐오는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의 얘기도 다 못하는데 옛날 얘기나 하고 있겠습니까. 응? 그러니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내 몸과 내 가정, 내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거부터 자유재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것은 우주 법계를 탐험도 할 수 있고, 탐험이라는 것은 가고 오고 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거울로 비추어 본다면 전체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심안의 눈 없이 내가 될 수 있고, 가고 올이 없이 오고 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적이 된다고 소립니다.

그것은 주장자라고도 하지만, 옛날에는 주먹을 내밀고 주장자를 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방편을 썼지만, 옛날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옛날에는 설법을 하고도 시조처럼 끄트머리에 읊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육임 최고의 비서 秘書

육임직지 六壬直指

한글판 번역 해설 출간

- 한글판 알면 일반인도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며 해당과전을 찾아서 읽으면 주어도 놀라운 적중률.
- 720과전이 모두 해석되어 있는 육임의 필독서 각 과마다 해당되는 모든 필법(백법) 해설수록.
- 육임을 오랜기간 공부하고도 과전해석이 어려운 분은 본서本書를 읽다보면 스스로 과전해석의 비법 터득.
- 본서 구입자에 한하여 전국순회강의시 무료수강 혜택 (본서로 가정에 해를 입히는 영가靈駕 찾는법, 책보는법 등은 1회 수강으로 쉽게 알 수 있음)
- 육임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필수핵심내용을 요점으로 정리하여 부록에 수록
- 책의 가치는 수백만원이지만 무단복제방지를 위하여 복사비수준의 파격적인 가격책정.

육임직지주해 / 세종출판사 / 소담 昭淡 주역

제1권 갑자순
제2권 갑술순
제3권 갑신순
제4권 갑오순
제5권 갑진순
제6권 갑인순
제7권 부 록

●제1~6권 각권 28,000원
●제7권 부록 정가 12,000원

출판기념 특가판매 (배송비무료)

- 계좌 : 농협(조일홍) 815132-52-354445
- 전화 017-844-7100(055)362-2799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한**

불 전 함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도 금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영숙)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한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
모두 필요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 (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적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인간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급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